

보조금 유용 목인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분

도감사위, 해양수산 보조금 조사결과... 훈계 요구 빈축 수천만원 유용 알고도 눈 감아 이듬해엔 보조금 재선정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조금 유용을 눈 감은 제주도 공무원에게 '훈계'만 요구돼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5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분야 아업법인 등 보조금 지원실태 기획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해양수산분야 보조금 감사'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다. 조사 결과 감사위는 총 47건(시정 10건·주의 31건·통보 6건)을 처분하면서 신분상 조치 19명(경징계 2명·훈계 5명·주의 12명), 재정상으로는 5960만6000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항을 보면 제주도는 2018년 3월 22일 A업체에게 '수산물 포장재' 보조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A업체는 같은달 28일 999만9000원을 법인 계좌로 이체,

4개월 동안 용도 외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2019년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도 A업체를 재선정해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제주도는 2018년 12월 11일 자체조사를 완료하고도 교부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원희룡 지사는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훈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보에서 훈계 조치가 적정하냐는 질문을 하자 "대가성 등 고의적인 측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2016년 10억원 상당의 '친환경 새우양식 시설지원 보조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자부담률을 40%로 안내했지만, 실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는 50.9%로 변경, 면허가 없는 업체 등과 수익계약을 체결했다. 또 착공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자부담률을 다시 44.4%, 준공 정산 때는 43.1%로 바꾸는 등 정산 시 집행잔액을 전부 자부담으로 정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집행잔액 등 1545만 6000원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교육청 예산 집행률 낮는데... 대처는 안일

도교육청 3회 추경안 심사 도의회 예결특위 문제 지적 올해 집행 목표 85.2% 그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가장 낮은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201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한영진(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위해 집행률 최대치를 92%로 잡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목표 집행률은 85.2%"라며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도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교육청의 본예산에는 시설 사업비 비율이 9.6%인데, 최종 예산에는 그 비율이 17.6%에 달한다. 결국엔 작년보다 8%포인트 예산을 올해 집행하고, 올해 남은 예산을 내년엔 쓰겠다는 것"이라며 "시설사업비 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을 알고도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강성민(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의원은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률이 매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월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집행률 확대가 언급된 것은 교육청의 시설비 예산 등이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한국은행, 상공회의소 등과 지역경제 현안



한영진 의원 강성민 의원

회의를 하는 것처럼 제주도교육청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만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집행률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야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문화의집 활용 프로젝트 추진 서귀포시·문화의집협회 협약

서귀포시는 23일 시청 셋마당에서 (사)한국문화의집협회(회장 차재근)와 업무 협약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서귀포시 생활문화 거점공간인 문화의집을 활용한 서귀포시 생활문화 진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문화의 집 역할 확대를 위한 공동프로젝트 진행, 서귀포형 생활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위한 협력, 서귀포형 생활문화 기획자 발굴과 양성을 위한 협력 등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신나는 눈썰매 23일 한라산 아리목광장에서 열린 '2020 제주윈터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눈썰매를 타고 있다. 강희만기자

드림타워 경력직 270명 모집에 8100여명 지원

관리자급 공채 경쟁률 30대1 내달 7일부터 신입·주임 채용

3100명 가량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 나선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공개 채용에 구직행렬이 이어졌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0월 7일부터 최종 마감일인 지난 22일까지 70여 일 동안 사람인과 잡코리아 등의 구직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270명의 관리자급 경력직 모집에 8142명이 지원해 평균 3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170명을 뽑는 호텔객실 부문에서 3206명이 몰린 것을 비롯 지원부서 2396명, 식음료(F&B) 부문은 1253명, 카지노는 895명이 각각 지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당초 모집기한도 당초 11월 16일에서 한달여 연장했다고 설명

했다.

제주에서 가장 높은 38층 169m, 연면적으로 여의도 63빌딩의 1.8배(30만3737㎡)의 웅장한 스케일로 1600개 올 스위트 객실 어디에서든 한라산과 제주 바다를 파노라마 뷰로 조망할 수 있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내년 3월 준공되면 제주 핵심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롯데관광개발측은 기대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경력직 모집에 이어 1월 7일부터 2700명에 이르는 신입 및 주임급 관리직원 등에 대한 공개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0월 11일 제주대를 시작으로 제주국제대, 한라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관광대 등 제주 소재 5개 대학과 잇따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제주 인재 양성 작업에 착수했다.

조상윤기자 svcho@ihalla.com

"감귤산업의 가치 전달하는 박람회 해야"

어제 2019감귤박람회 평가회

올해 7회째 열린 '2019 제주감귤박람회'는 제주를 대표하는 박람회로, 제주감귤산업의 성장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는 장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함께 감귤산업의 친환경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 전달 등 미래지향적 박람회로의 전환을 통한 감귤의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과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양병식)는 23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2019 제주감귤박람회' 최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감귤산업 50년, 미래감귤 50년, 제주감귤 100년의 가치'를 주제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감귤 전시관, 제주농업관, 산업전시관, 농자재전시관 등 전시행사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장으로 선보였다.

평가 결과 제주감귤박람회 개최로 38억70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고, 관람객은 여성과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박람회 기간에 운영한 감귤마키 체험행사에는 5000여 명이 참여할만큼 인기가 많았다. 올해 처음으로 방문객 편의를 위해 운행한 셔틀버스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94.2%가 높은 만족도를 보여 앞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평가회에서는 성공적인 제주감귤박람회 개최에 기여한 유공자(제주감귤이성일, 농협제주지역본부 강경범,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허정민·현수호씨 등 4명)에게 도지사 표창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김진아 팀장과 협조기관인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성명·연령·정당·직업·경력 순



▶제주시 갑 ▷고병수 ▷55 ▷정의당 ▷의사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탐동 365의원 원장



▶제주시 갑 ▷임효준 ▷47 ▷무소속 ▷무직 ▷전 제주매일 부국장,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제주4·3사건 관련 유족증 발급 및 복지 지원 안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조비 신청, 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등 복지지원 안내사항입니다. 2020년에는 1945년생도 만 75세가 되어 생활보조비 신규지원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복지 내용

- **생존자 의료비** :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자
 - 의료비(도내 지정병원, 약품대 및 입원비 본인 부담 100% 지원)
 - 장제비(300만원 지급)
- **생활보조비** : 생존희생자 및 희생자 배우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매월 지원
 - ※ 신청방법 : 도내 거주자(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 **유족 진료비** : 1954년 유족까지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단, 본인부담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며느리 진료비** : 1954년생 며느리까지 지원(자부담 해당됨)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단, 본인부담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2.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안내**
 - 지원대상 : 제주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
 - 신청접수 : '19. 4. 1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도내 거주자(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국외거주자(제주도 4·3지원과)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위임장,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3×4)
 - ※ 신청서 : 읍면동 및 도청 홈페이지 "유족증" 클릭

3. 기타 복지혜택

- **항공할인** : 제주항공(생존희생자 50%, 유족 30%, 제주기점에 한함)
- **주차료 감면(생존희생자 및 유족)** : 50%
 -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공국제여객터미널(7부두)
 - 절물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 면제), 한라산국립공원(면제), 한라수목원
- **관람료 무료(생존희생자 및 유족)** :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등
- **화장장 사용료 무료(희생자)** : 양지공원 등에 화장 및 안장비 면제

문의처

- 제주도청 4·3 지원과 064)710-8434~6
- 생활보조비 : 제주자치도 읍·면·동사무소(생활보조비 담당)
- 생존희생자, 유족진료비, 며느리진료비 : 제주4·3평화재단 064)723-4309, 4340